

발신

전쟁없는세상

담당자

최정민 활동가

전쟁없는세상 2035 NDC 의견 제출

“2035 NDC에 군사부문 배출 반드시 포함해야”

정부 의견수렴에 군사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포함 촉구

- 평화운동단체 전쟁없는세상은 어제(10월 27일) 2050탄소중립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에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 NDC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의견서에서 ▲NDC의 포괄성 확보 ▲투명성·책임성 확보 ▲국제적 리더십 발휘 ▲지연 방지를 4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 군사부문은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국가로 환산할 경우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의 NDC는 군사 부문 배출을 투명하게 집계·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한국은 세계 11위 군비 지출국이자 10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국제평화연구소(SIPRI)와 글로벌 책임을 위한 과학자 모임(SGR)의 연구에 따르면, 군비지출 1,000억 달러 증가 시 3,2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배출됩니다.
-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결정문은 2035 NDC가 **'모든 온실가스, 부문 및 범주'**를 포괄하는 '야심 찬, 경제 전반의' 감축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5. 기후운동계는 한국의 배출책임, GDP, 인구 등 역량을 고려하여 **65% 이상의 감축 목표 설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사부문 배출을 포함하지 않고는 65% 이상의 진정한 감축 달성이 어렵습니다. 2035 NDC에 군사부문 감축 목표를 포함하는 것은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파리협정 1.5°C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6. 전쟁없는세상은 전쟁없는세상은 2003년 병역거부자들과 그 후원인들의 모임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없는세상은 모든 전쟁은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라는 신념에 기초해 전쟁과 전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쟁없는세상의 핵심 활동인 병역거부 캠페인, 무기감시 캠페인, 기후위기와 군사주의 캠페인은 그러한 노력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첨부] 2035 NDC 군사부문 배출 포함을 요구하는 의견서

문의: 전쟁없는세상 02-6401-0514 / peace@withoutwar.org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 포함을 요구하는 의견서

요약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결정문이 권고하는 '모든 부문 포괄' 원칙과 최고 수준의 야심을 반영하기 위해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군사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5%를 차지하는 중요한 배출원입니다. 현재 한국은 NDC에서 군사부문 배출을 투명하게 집계·공개하지 않아 NDC의 포괄성과 책임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세계 11위 군비 지출국으로서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의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1. NDC의 포괄성 확보와 '모든 부문 포함' 원칙의 이행이 필요합니다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결정문은 2035 NDC가 '모든 온실가스, 부문 및 범주'를 포괄하는 '야심찬, 경제 전반의(economy-wide)' 감축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환경부의 논의(안)은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등 주요 부문을 망라하고 NDC를 '정책'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군사 부문은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군사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상당량을 차지합니다(약 5.5%, 이를 하나의 국가로 가정할 경우 중국,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 수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의 국가 기후 계획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2035 NDC가 GST의 권고대로 모든 부문을 포괄하는 진정한 야심 찬 계획이 되려면 **군사부문 배출량의 산정 및 감축 목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2.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군사부문을 NDC에 통합해야 합니다

군사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약속을 새로운 NDC에 통합하지 않을 경우, 실현 가능성이 감소하고 NDC 이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35 NDC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감축 수단, 정부 지원 방안 및 법·제도 개선 사항을 상세히 제시하는 '정책 패키지'로 만들고, 향후 이행 점검과 연계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사 부문 감축 목표나 이행 조치가 누락될 경우, NDC가 국내 배출원 전체에 대한 투명성을 확

보하지 못하며, 정부가 NDC를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이행의 확실성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군사부문을 NDC에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국제적 리더십 발휘와 진전의 원칙을 구현해야 합니다

올해 4월 발간된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11위 군비 지출 국이자 10위 무기 수출국입니다. 글로벌 책임을 위한 과학자 모임(SGR)의 연구에 따르면 군비지출이 1,000억 달러 증가할 때마다 3,2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추가로 배출되는 것으로,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까지 국내 군사 연료 연소 배출량을 미분류(1.A.5) 항목에 포함시켰을 뿐(항목 전체 배출량 중 얼마만큼이 군사용인지 명시되지 않음) 아무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특히 군사 강국으로서의 배출량 상당수가 투명하게 집계·공개되지 않은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군사부문 감축 약속을 NDC에 포함하는 국제적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다.**

GST 결정문은 각국의 2035 NDC가 2030 NDC보다 진전되고 가능한 최고의 야심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2030년까지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기후운동은 2035 NDC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각국이 GST 결정문이 권고한대로 야심찬 감축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다음 NDC 업데이트 주기인 2030년까지 미뤄지게 되어 파리협정의 1.5°C 목표 달성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지연(unacceptable delay)'이 될 것입니다.

군사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 군사 배출량을 포함하지 못하면 이 부문의 포함이 2030년까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지연이 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2025년 11월까지 2035 NDC 최종안을 UN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NDC에 포함되지 않은 군사부문의 감축 노력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이를 NDC에 통합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이행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의 책임 있는 선택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무기산업을 "산업경제의 성장축"으로 강조하며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방위산업 진흥과 국방비 확대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자, 한반도와 동아시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무기산업 육성과 기후위기 대응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무기산업 진흥을 말하기 전에 상응하는 기후 책임을 먼저 져야 합니다.**

2021년 NATO 사무총장 연례보고서에 실린 회원국 2만8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단 17%만이 "군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군사 부문도 기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후운동은 한국의 배출책임, GDP, 인구 등 역량을 고려하여 **65% 이상의 감축 목표 설정**을 주장합니다. 군사부문 배출을 포함하지 않고는 65% 이상의 진정한 감축 달성이 어렵습니다.

2035 NDC에 군사부문 감축 목표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GST 결정문이 명시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야심을 반영하는 중요한 진전의 척도이자,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2025년 10월 27일

전쟁없는세상